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처음 제자들 I

(요 1: 35 - 51)

이종윤 원로목사

1. 세례 요한의 증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35-36).

‘이튿날’은 29절에도 나와 있는바 본문은 29절의 연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한 사람은 안드레(40절)이고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섰다’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을 가지고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다니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니신다는 말이 아니고 walked around, walked about 예수님이 그 주변을 거니시는 장면입니다. 또한 ‘본다’는 말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 깊게 응시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 그분의 눈동자, 손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응시해 보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되’는 이제 확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세히 응시해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1) 관찰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그저 지나가다 우연히 무언가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정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응시해야 됩니다. 참을 찾으려고 주시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만물을 선불리 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선불리 보지 않았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움직이시는 것, 그분의 모든 것을 유의하여 보고하는 말입니다.

(2) 증거

이미 요 1:29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군중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말을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3) 인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계하는 공적인 말입니다.

2. 제자들의 추종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요 1:37).

여기에 두 단어가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말을 ‘듣고’입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14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들어야 믿습니다. 기독교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따르거늘’입니다. ‘따라간다’는 시제는 일회성을 나타내는 동사로 한 번 따라가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따라잡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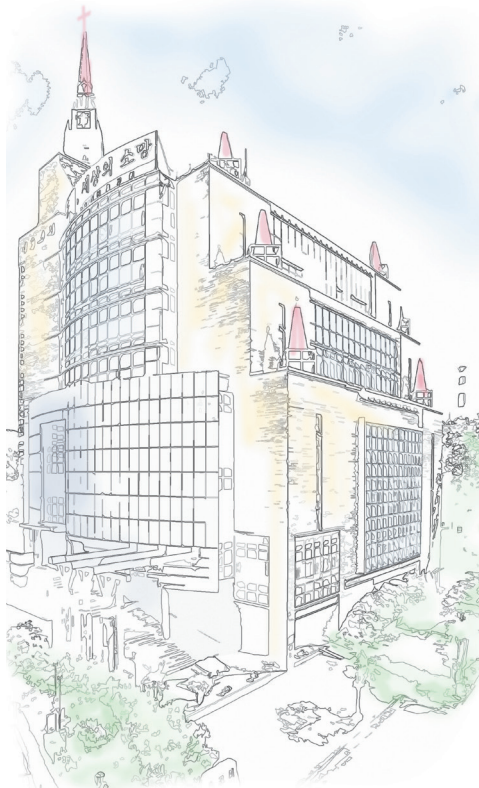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습니다’하고 세례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반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간다’는 말을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 자신을 완전히 투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수 주일,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 헌신(commitment to Christ)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먼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루려고 각각 지체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행정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각각 은사를 주신 것은 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방해가 됩니다.

‘따르다’는 말은 무엇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배가 거룻줄을 끊고 육지를 떠나야 다음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먼저 세상에 붙은 마음을 끊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선불리 받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주님과 함께 지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형제에게 외식하면 위선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 진리에 근거해서 살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계속)



2019 사명자대회

교회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

“
매일 낮 12시
전교인이 3분간
교회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2019 사명자대회가 내일부터 3주차에 들어선다.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인 기도·말씀·전도 운동인 사명자대회가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간절한 것은 무너진 서울 교회를 다시 세우고,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아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윤종현1 김철수·김서윤 감우균·김연화1
이주현·이주영 김현영 12교구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10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10월 20일: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 10월 27일: 노선균(흉부외과), 김동건(치과)

- 상담 예약: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제55회 기독교학술원 공개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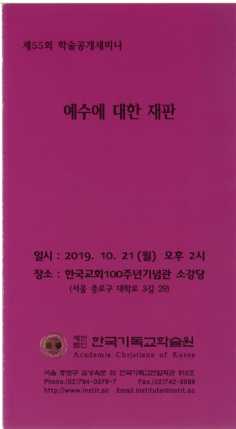
10월 21일(월) 오후 2시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 소강당

예수에 대한 재판에서 로마법과 유대 종교법에 의해 각각 세 차례씩 여섯 번의 재판을 받고, 종교법으로는 신성 모독죄로, 로마법으로 빌라도는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고 석방까지 하려 했으나 로마법(고발, 증거, 방어, 판결)을 일탈하여 헤롯에게 보

내어 가이사에게 반역을 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가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예수에 대한 재판'이라는 주제로 성경적, 국가법적 해석을 통해 오늘의 교회들의 송사문제를 접근 해석을 시도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제력을 상실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애초부터 쫓겨 다니는 사람이었고, 단 한 번도 자신의 내면세계를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울들, 즉 재산을 쌓으면서 인정받고, 성취하기 위해 쫓겨 다니다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의 영향을 받으며 “쫓겨 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성경적 가치를 지닌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우리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흐름에 쫓겨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성경통독: (통독 본문 기록)

▶ 주어진 “사명자대회 기도문”을 읽고 기도드립니다.

1. 쫓겨 다니는 사람은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낀다.
2. 쫓겨 다니는 사람은 성취를 나타내는 상징을 과시하는데 재빠르다.
3. 쫓겨 다니는 사람은 보통 통제되지 않는 확대욕구(욕구/욕망의 확대)에 사로잡혀 있다.
4. 쫓겨 다니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다.
5. 쫓겨 다니는 사람은 사람을 조종하거나 위협하는 능력이 아닌 한, 대인관계 기술이 풍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6. 쫓겨 다니는 사람은 보통 경쟁심이 강하다. 그들은 모든 일을 승과 패를 가르는 게임으로 본다.
7. 쫓겨 다니는 사람은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다. 그래서 반대로 불 충성을 감지할 경우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8. 쫓겨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바쁜 것을 자랑한다. 그들은 노는 법을 잊어버렸다. 영적활동도 시간 낭비로 보인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만큼 “쫓겨 다니는 인생의 전형”을 잘 보여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는 바쁜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할 대상(성취, 경쟁심)으로 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임박했을 때, 제사를 드리러 올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가 제 시간에 오지 않자 안달이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려 나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일을 진행시켜야만 했습니다. 그가 택한 해결책은 희생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것(욕구확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크게 파기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의 책무이지 사울 같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몹시 중요한 인물로 여긴 나머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울의 분노가 폭발하는 장면(분노)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는 그로 인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고 나서는 곧 비통한 자기 연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말년에는 원수를 찾느라 온 숲속을 뒤지며 자



고 이강진 장로님을 추모하며



믿음의 동역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 이강진 장로님을
기리며



임상현 장로(당회 서기)

지난 9월 18일 원로목사님을 모시고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강남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시던 장로님을 심방하였습니다.

그날 원로목사님의 시편 86편 말씀을 불편한 몸을 쫓쫓이 세우고 성경본문 한절한절에 눈을 따라가며 ‘아멘, 아멘’ 하던 장로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장로님의 영정 사진처럼 지금 천국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 땅에서 상상하던 천국보다 훨씬 더 아름다다며 생생히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심방 이후 몸 상태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부인 송권사님의 말씀에 언제라도 갑자기 부음이 올 수도 있겠구나 했지만 10월 10일 다소 늦은 밤, 교구담당 장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의 별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이강진 장로의 수고는 이것으로 족하다’라는 음성이 귓전을 때렸고 그 순간 더 늦지 않게, 더 고통으로 힘들어지지 않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는 마음에 위로를 받으면서 장로님을 사랑했던 온 성도들과 함께 최대한 정성스런 천국환송의 예를 갖추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많은 분들의 애도와 추모 속에 장로님의 장례예식을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회분쟁 초기부터 의의 분냄에 용감하셨고, 길어지는 분쟁 속에서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 전쟁을 최선봉에서 몸소 감당해 오시던 이강진 장로님!

안식년본안 1심 승소판결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생각지도 않았던 질환이 발견되어 1년여 투병 중에 계셨지만 그 어느 한순간도 교회회복을 위한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꼭 교회회복의 모습을 직접 보고 떠나고 싶다고 것처럼 소원했는데 아무래도 그 순간까지 장로님에게 맡겨진 몫은 아니었나 봅니다.

장로님은 교회회복의 광과르 나팔이 먼저 울려지

를 소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로님께 이 땅에서의 그동안 수고로 족하다며 천국입성의 광과르를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신앙인의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하루하루 묵묵히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의 생의 길이가 길건 짧건 장로님은 참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장애를 가진 몸이었음에도 불편한 마음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고, 대학 재학 중인 젊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3년간 울퉁은 법관의 길을 걸었습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몰입하지 않은 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며 앞장서 달려온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좋은 권사님과 함께 1남 2녀 세 자녀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 안에서 성장시켰으니 정녕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수한을 이 땅에서 허락받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장로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값싼 세상 일이 아닌,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한 값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으니 천국에서는 더 큰 상급을 받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비록 교회회복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장로님은 천국에서 세상 일에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 더 가까운 곁에서 오직 교회회복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테니 이제 그 기도와 함께 우리 남아 있는 자들은 더 열심히 최후 승리를 위하여 달려갈 책임만 남았습니다.

장로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생에서의 모든 걱정 다 내려놓고 천국에서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2019 사명자대회

초대교회처럼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최원석 집사
(2019 사명자대회
동원분과장)

10월 첫째 주 찬양예배 시 사명자대회 발대식에서 이종윤 원로목사님은 초대 교회의 모습이 담긴 성경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중략)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니라 (행2:42-47).

교회 본연의 모습을 생각하시며 교회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이어 “사명(使命)은 왕이 주신다”는 내용으로 설교하신 장석남 목사님은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신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나라에서 왕이 주신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설교 결론 부분에서 장목사님은 교회를 세우고 지키며 성장시키고 전도로 확장시키고 확산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 받은 작은 직분이라도 섬김의 도리를 충성스럽게 다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우리 서울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천국시민을 양성하고 만민에게 전도하며 빈약한 자를 구제하는 목표와 이

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최근 몇 년간은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혼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의 시기에 50일간 사명자대회를 통해 말씀으로 무장하며 열렬히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서울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어 받은 크고 작은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도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 사명입니다. 금년도 사명자대회는 교회혼란을 종식시키고 그 이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정상화된 내년도 서울교회를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그 어느 사명자대회 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각 다락방마다 삼삼오오 모여 기도하고, 혼자 시간을 내서 잠잠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사명자대회의 핵심입니다. 자율기 도신청서를 통해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새벽을 깨우며 열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기도 제목 중에서 첫 번째인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배우고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재건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2019 성경암송대회 은혜중에 마칩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성경암송대회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성경암송대회는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생활화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마태복음 5장-7장

선상수훈이었다.

예선은 9월 29일(주일)에 열렸으며 본선은 10월 12일(토) 오후 2시에 열렸다. 참가자들은 예선을 거친 총 55명 (개인 17명, 단체 8팀) 완료 1명이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한글암송 -개 인-

· 장년부

- 특별상 : 이응선 장로
- 대 상 : 이영조 김진달
- 사랑상 : 한춘홍 김미성
- 믿음상 : 장정화 오충례 박유진
- 소망상 : 김봉배
- 장려상 : 이홍숙

· 유아부

- 대 상 : 최아준 - 사랑상 : 유하민 - 믿음상 : 이하륜

· 유치부

- 대 상 : 이하은 - 사랑상 : 주하연 - 믿음상 : 한세희
- 소망상 : 김재윤

· 중등부·사랑부

- 사랑상 : 최지훈 (사랑부)
- 장려상 : 정은지 (중등부)

- 단 제 -

- 대 상 : 김하민 김하진 유서연 윤서진 한세아(유년부단체)
- 사랑상 : 최주하 박인성 유하연 임하람 이시우 (유초등부단체)
유인정 조상희 노애리 송명원 신경미 (12교구 1, 3다락방)
임대중 집사가정 (임대중 남제는 임하린 임하람 임하을)
- 믿음상 : 장유정 김하진 배은찬 임하람 이시연 (유·초등부단체)
권소희 백영자 박유진 김승록(중·고등부단체-교사)
- 소망상 : 한예준 임하을 이예은 유서연 김하준 이시연

▶ 영어암송

- 대 상 : 노문환
- 사랑상 : 최시원 오선아 한예승 문영은(유·초등부단체)
- 장려상 : 최영은(영어예배부)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0월21일	월	눅 14-16		렘 37-46	
10월22일	화	눅 17-18		렘 47-52	
10월23일	수	눅 19-20		애 1-5	
10월24일	목	눅 21-22		겔 1-7	
10월25일	금	눅 23-24		겔 8-15	
10월26일	토	요 1-2		겔 16-20	
10월27일	주일	요 3:1-4:45		겔 21-27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0월 21(월) 오후 2시 기독교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예수에 대한 재판'제하기로 열리는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 학술세미나에 참석한다.

■ 금주의 식사 : 최봉애 권사 한옥 성도 (한옥 성도 결혼 감사드리며) 잠재범 김치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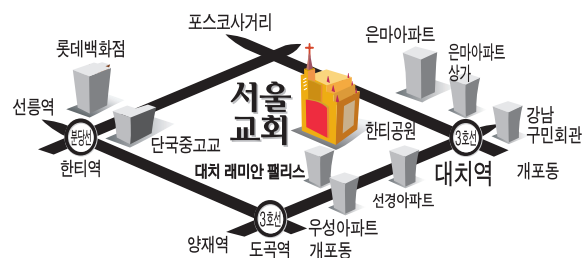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19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케 하옵소서.
2. 교구별 연합모임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주장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당면한 국내외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여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